

2024 년 5 월 19 일 “(가정 3) 결박을 풀어주는 곳”(사 58:6-11)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교통이 멈추면 사람의 관계는 상하게 되며 자기 뜻대로 이루기 위해 상대를 결박하게 됩니다. 강요하고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결박을 풀어주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한 결박

* 금식: 음식을 먹지 않고(육신의 힘을 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상징적 행위.

6 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고...’

금식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인간 중심적 압제와 조정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에 강요와 조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닥치면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더 좋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의 태도와 방식과 행동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나친 애착이 집착이 되어서 서로에게 필요이상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는 중독이나 인격장애의 문제로 인해 가족을 불안하고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가족은 자기 가족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에 결박됩니다. 엄마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은 공포에 결박됩니다.

실제로 자기 인격(성격과 방식 등...) 속에서 작동하는 압박, 조정의 방식 등으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 영적 결박이 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9 절), 이런 결박을 풀어내는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결박을 푸는 길

수많은 결박을 하나씩 색출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얽혀진 결박을 푸는 시작은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깊은 공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가족을 조정하며 결박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풀 수 있습니다. 결박을 풀어내는 도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미안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약한 말 같지만 나와 상대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말이며,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 안의 내적 외적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박이 풀리면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한 사랑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의 관계와 가족과 관계 속에서 매였던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삶의 결박을 풀어 주시기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어 주신 삶과 피를 대하며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내적 외적 결박을 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나의 인간중심적인 태도와 방식이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이런 부분을 고치면 가족에게 더 영적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2. 상대가 불쌍히 여겨질 때 나는 주로 어떤 태도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나요?